“버킷리스트”

최충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은퇴한 남편과 함께 영구 귀국해 여수에서 살면서,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버킷리스트〉(The Bucket L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가 유명해진 후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세간에 회자되어 알게 되었지요.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놓은 목록을 의미합니다.

버킷리스트! 만일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를 만든다면 어떤 것들을 적어 넣으실지 궁금하네요. 저의 버킷리스트도 궁금하시다구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첫 번째로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평소 생각해 보지 않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번지점프입니다! 왜 번지점프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이 번지점프였습니다.

제가 평소 즐기는 운동은 걷기와 수영입니다. 수영을 따로 배운 것은 아니고 옆 사람들을 보고 따라 하다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허우적거리고 애를 쓰다가 개구리 수영, 모잽이 수영, 그리고 자유형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면 가슴이 철렁하고 바짝 긴장하곤 했지요. 그래서 언제라도 손을 뻗으면 안전대를 붙잡을 수 있는 곳에서만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대담해지면서 깊은 곳에서도 여유 있게 다니게 되었고 우쭐해진 저

는 그럴듯한 폼을 잡으면서 수영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수영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예. 저는 배영을 못합니다. 배영은 몸을 뒤집어서 하는 수영이지요. 수영하는 분들 말로는 배영처럼 쉽고 편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에 누워 유유자적 노를 젓듯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 시도해 보았는데, 생각과 달리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수영장의 밍밍한 물이 콧속으로 들어가 캑캑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해도 자꾸 실패하니, 결국 배영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다른 수영은 그런대로 하면서 배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신뢰'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완전히 물에 맡기고 힘을 빼야 부력에 의해 뜨게 되는데, 물이 나를 떠받쳐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과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제 신앙생활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훈련된 익숙한 수영, 무엇보다 물 위에 얼굴을 내놓고 앞의 상황을 살필수 있는 수영스타일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배영은 물위에 누우면 앞을 볼 수 없고, 위만 바라보게 됩니다. 게다가 손을 잘못 저으면 몸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모험도 하지 않고 안전지대에서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것은 잘 감당지만 주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배영을 하다가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력의 속성을 믿어야 물위에 누울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은혜의 강물 물에 가볍게 몸을 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흘러갈 수있다는 것입니다.

버킷 리스트를 생각하면서 번지점프를 떠올린 이유가 아마 이것이었나 봅니다.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 영적 열망이 배영보다도 모험정신을 더 필요로 하는 번지점프로 이미지화 되어 떠오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허공을 향해 몸을 날릴 때 100퍼센트의 신뢰가 없다면 아무도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용감하게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세심하고 과학적인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내리는 사람은 그 안전장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멋지게 날개짓을 하고 몸을 날려도 안전장치가 부실하면 그대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배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몸을 뜨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물이 그렇게 하는것 입니다. 다만, 물의 속성을 믿고 맡길 때 배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안전장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영혼의 번지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로 번지점프를 꿈꾼 것은, '온전

한 신뢰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퍼센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고공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 나의 힘을 빼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는 영적 열망이 저로 하여금 뜬금 없이 번지점프를 떠올리게 했다고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영혼의 번지점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과 완전무결한 사랑의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뛸 준비되셨나요? 하나, 두울, 세엣!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 15:4-5)